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2.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 연구실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6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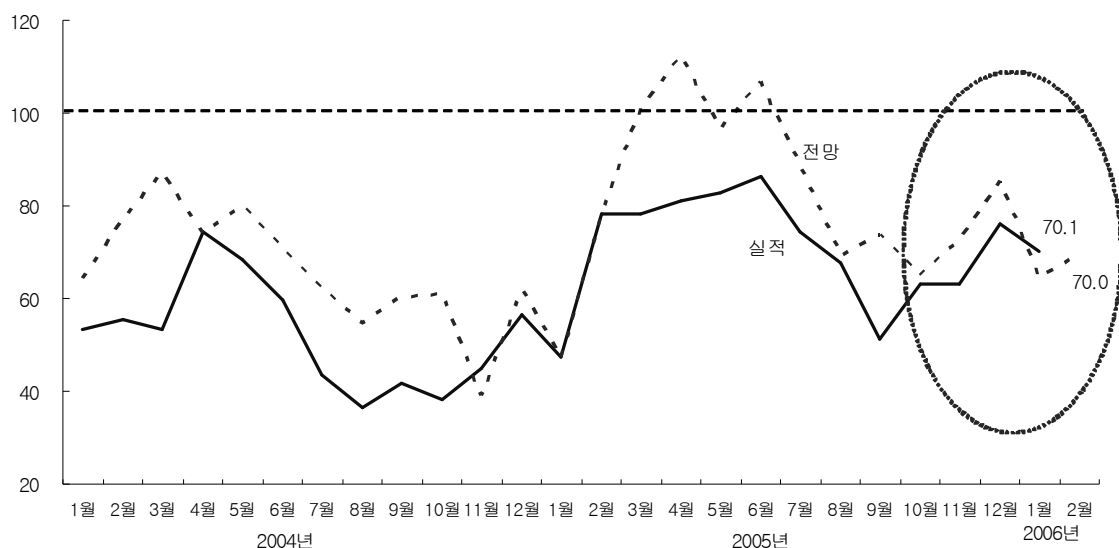
- 2006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1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 9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이번 달에는 6.0p 하락함.
·규모별로는 대형업체(80.0)가 전월에 비해 20.0p 하락하였으며, 중견업체(70.6), 중소기업체(58.0)는 여전히 크게 낮음.
 - 1월은 전년 말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올해는 과거에 비해 하락폭은 작으나 이는 2005년말 공사물량의 많지 않아 반등 폭이 작았기 때문임(전년 12월과 1월 체감경기의 격차 ; 2003(-24.8)→2004(-25.4)→2005(-9.2)→2006(-6.0)).
 - 2월 전망은 과거보다 상승폭이 적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1월과 2월 전망격차;2003(22.1)→2004(13.2)→2005(31.2)→2006(5.3)).
- 공사물량지수는 66.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8.7p나 하락함.
 - 공종별로는 토목(68.1), 주택(57.2), 비주택(49.1) 모두 공사물량이 감소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80.0)가 토목(90.0), 주택(70.0), 비주택(40.0) 모든 공종에서 공사물량이 감소함. 중견업체(68.8)와 중소기업체(48.0) 모두 물량이 크게 부족하며, 중소기업체는 2개월째 50선을 밀도는 부진이 이어짐.
- 인력과 자재부문의 수급은 원활하나 여전히 비용은 높은 상태가 지속됨.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3.3, 109.8을 기록함. 반면, 인건비(86.8)와 자재비(80.6)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월 CBSI 70.1, 2월 전망 70.0으로 체감경기 낮은 상황 지속

- 2006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1을 기록함.
 - 체감경기는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월에는 지난해 12월보다 6.0p 하락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규모별로는 지난달 비교적 체감경기가 좋았던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100.0)는 지난해 12월 기준선을 회복하였으나 1월에는 20.0p 하락함. 이는 지난달 물량 증가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혹한기라는 계절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70.6, 58.0을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체의 경우 전월에 비해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50선에 머무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79.3, 57.3을 기록하여 체감경기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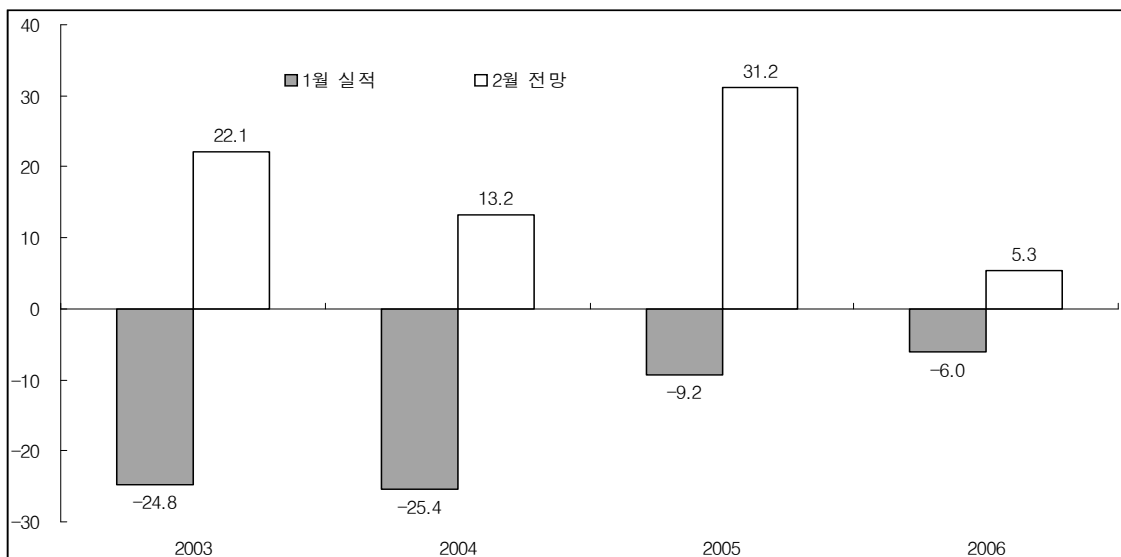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5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전망
총 합		78.1	78.4	81.2	82.9	86.4	74.2	67.8	51.3	63.0	63.3	76.1	70.1(64.6)	70.0
규모 별	대형	100.0	100.0	100.0	109.1	107.1	100.0	83.3	41.7	61.5	72.7	100.0	80.0(60.0)	60.0
	중견	74.5	81.8	81.6	71.0	90.5	76.5	63.9	59.1	76.9	59.3	79.4	70.6(79.4)	73.5
	중소	56.5	49.1	58.8	65.9	57.4	41.5	54.0	53.7	48.9	56.9	44.4	58.0(53.2)	77.6
지역 별	서울	91.3	98.1	96.1	101.6	98.5	86.4	80.9	50.1	71.0	69.5	87.4	79.3(64.3)	71.2
	지방	60.0	50.4	57.7	54.4	63.6	59.8	57.6	55.5	60.3	53.2	38.8	57.3(45.7)	71.6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통상적으로 1월의 경우 12월대비 지수가 하락하는 추이를 지속해 옴.

< 전월 대비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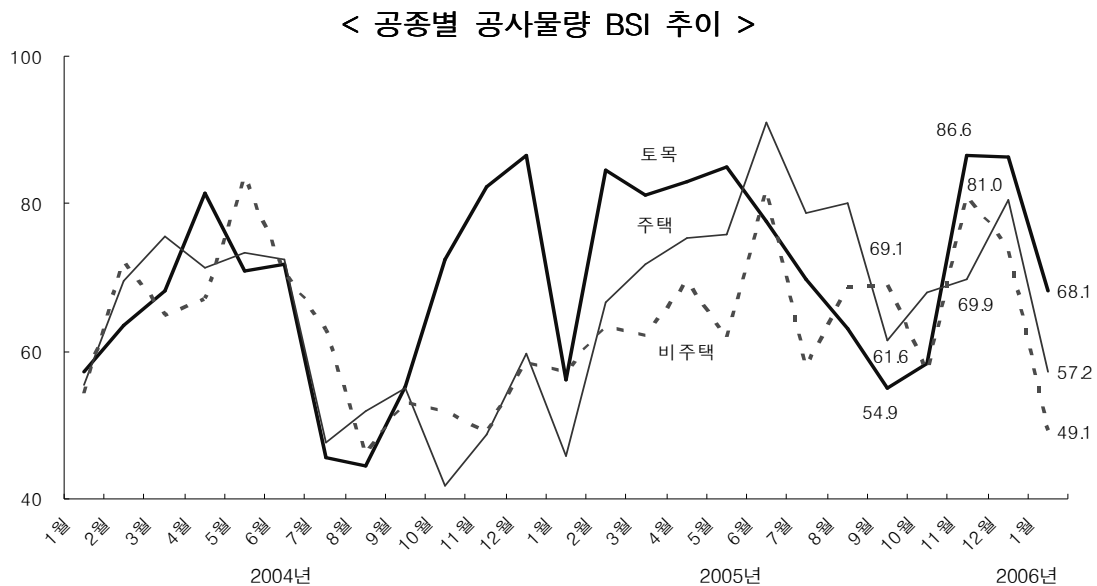


- 1월의 하락은 12월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반등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됨.
 - 12월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잔여물량이 발주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주택물량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2005년의 경우 정부 물량의 조기 발주로 인해 연말 물량이 적어 1월의 지수 하락폭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풀이됨.
 - 반면 2월 전망지수의 경우 정부기관의 발주가 시작되고 흑한기를 지나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2006년 2월 건설경기 전망은 70.0을 기록함.
 - 1월 건설경기 전망은 지난달 전망치에 비해 5.3p나 상승함.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월의 경우 전월에 비해 높은 전망지수의 상승을 나타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경우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비교적 큰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대형업체, 주택부문을 비롯한 모든 공종에서 공사물량 크게 감소

- 공사물량지수는 66.5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¹⁾.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에 비해 18.7p 하락하여 공사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통상적으로 1월에는 통계적 반등과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물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반복됨.



- 공종별로는 모든 공종에서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토목물량지수는 68.1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8.1p 하락함.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90.0을 기록하여 지난해 12월에 비해 30.0p나 하락함.
 - 주택부문은 57.2를 기록하여 지난 달(80.4)에 비해 23.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 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주택 부문은 49.1을 기록해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규모별·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의 물량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대형업체는 공사물량 지수가 80.0을 기록하여 지난해 12월 보다 40.0p나 하락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은 각각 68.8, 48.0으로 여전히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50선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공사물량지수가 각각 81.3, 56.8을 기록하였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대형업체 물량감소로 인해 22.6p나 하락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6.5	80.0	68.8	48.0	81.3	56.8
	전망	78.3	90.0	71.9	72.0	90.3	71.0
토목	실적	68.1	90.0	60.6	51.0	77.1	60.4
	전망	78.6	90.0	69.7	75.5	84.0	70.5
주택	실적	57.2	70.0	63.6	34.9	73.2	42.6
	전망	82.2	100.0	78.8	65.1	96.1	70.5
비주택	실적	49.1	40.0	61.3	45.8	50.3	50.0
	전망	70.0	80.0	64.5	64.6	78.2	66.7

주 : 실적은 2006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2월 예측지수임.

- 2006년 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8.3을 기록함.
 - 1월 전망지수에 비해 23.5p 상승한 수치이나 규모별·지역별 모두 기준선에 미치지 못해 공사물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 수급 원활

- 자금관련 상황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91.7, 94.2를 기록함.
 - 대형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100.0, 110.0을 기록하여 여전히 자금여건은 좋은 것으로 조사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1.7	100.0	100.0	72.5	95.3	84.4
		전망	91.6	100.0	91.2	82.4	95.3	85.5
	자금조달	실적	94.2	110.0	97.1	72.5	103.7	78.4
		전망	94.4	110.0	94.1	76.5	105.3	78.2
인력	수급	실적	103.3	90.0	123.5	96.0	102.5	106.1
		전망	90.9	80.0	102.9	90.0	88.2	94.3
	인건비	실적	86.8	100.0	82.4	76.5	91.8	79.9
		전망	92.3	110.0	79.4	86.3	101.8	81.1
자재	수급	실적	109.8	110.0	123.5	94.0	111.7	109.1
		전망	99.5	110.0	97.1	90.0	102.4	98.7
	비용	실적	80.6	70.0	88.2	84.3	75.5	90.0
		전망	86.6	100.0	76.5	82.4	91.4	81.1

주 : 실적은 2006년 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2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의 경우, 수급 여건은 원활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3.3, 109.8을 기록함. 전반적인 공사물량의 감소로 인력과 자재의 수급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인건비(86.8)와 자재비(80.6)지수는 여전히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았음.

- 2006년 2월에도 인력 및 자재의 비용은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2006년 2월의 인력과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0.9, 99.5를 기록하여 1월에 비해서는 수급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2.3, 86.6을 기록하여 수급 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았음.
 - 수급과 비용 관련 지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인력과 자재 수급의 경우 그동안 지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원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